에너지 화학산업에서 화학공학인의 역할

김윤하

SK Innovation Global Technology, Base Oil Technology Lab.

화석연료로 대변되던 에너지 화학산업은 경제성, G2(미국, 중국)의 경제 상황, 환경적인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수 많은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체는 각종 변수를 고려하여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복잡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체들은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에너지 화학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은 화학공학이 담당하고 있었다.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있어서도 화학공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나, 화학공학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이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에너지 화학산업에서 화학공학인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들을 나름의 시각으로 정의해 보고, 향후의 에너지 화학산업에서 요구될 것으로 보여지는 역량을 유추해 봄으로서, 화학공학이 담당해야 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